조정만 정인테크 대표, 순창에 고향사랑기부금 쾌척

순창군 출향인들이 연이어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을 기부하며 순창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순창 출신 기업인 정인테크 조정만 대표가 순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최고액 기부자 31호에 이름을 올렸다.

순창군은 1일 순창읍 출신으로 정읍에서 전지용 동박 제조 기업을 운영 중인 정인테크 조정만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조정만 대표는 "고향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며, "고향인 순창군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하며, 지속적으로 고향 발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으로 순창에서 살아가는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를 펼쳐 순창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수재민들 빠른 일상회복 기원합니다"

대한건축사회, 수해 복구 성금 1000만원 전북도에 기탁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는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수재민들에게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1일 전북도에 기탁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이태원 부회장, 조은석 총무이사, 유병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경비 등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은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조금이나마 수재민의 슬픔을 덜어 드리고자 회원들과 함께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건축인으로서 도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집중호우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은 도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보내준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도민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서로 서로 도와가며 난관을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수해복구도 도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수해를 입으신 분들이 빠른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제76대 남기재 무주경찰서장 취임

제76대 남기재 무주경찰서장이 지난달 3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남 서장은 취임사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중요한 사명인 사회안녕 질서유지와 평온한 민생치안 확보를 목표로 하여, 무주경찰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무주경찰"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남 서장은 취임식 직후 곧바로 부서별 주요 현안을 살펴보며 치안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남 순천 출생인 남 서장은 전남 순천고와 경찰대 행정학과(3기), 전북대 대학원 법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2013년 총경으로 승진한 후 군산경찰서장, 진안경찰서장, 전주덕진경찰서장, 경남청 거창경찰서장, 전북청 112종합상황실장, 경무과장, 수사과장, 안보수사과장을 역임하였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지역에 관심 · 애착 고향사랑 기부로 훈훈

연일 줄을 잇고 있는 고향사랑기부 손길이 불볕더위로 지친 무주군민들의 마음에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 임직원들이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을 기탁해 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 이형삼 지사장은 "한국국토정보 무주지사는 지적 측량을 통해 무주군 개발과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곳으로 직원들 모두 무주에 대한 애착이 크다"라며 "그 마음들을 고향사랑기부에 보태게 돼 뿌듯하고 직원들의 정성이 무주발전과 무주군민 행복을 뒷받침하는데 귀하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과 공간정보 및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과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적측량 혁신지사'로 꼽히는 무주지사는 드론 촬영과 최신 측량 기술을 접목한 지적측량을 추진 중이다. 총 9명이 근무를 하며 1명은 무주군청 민원실에 파견돼 지적측량 접수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에서는 지난 2022년까지 10년간 무주종합복지관과 무주평화요양원에 매년 각 50만 원씩, 총 1백만 원을 기부해오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www.ilovegohyang.go.kr)는 1인당 연간 5백만 원 한도에서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기부액의 30% 범위 내)로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액의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군에서는 벌초대행서비스 등 총 48종의 답례품을 마련했으며 관내 소외계층에게 농산물꾸러미를 선물할 수도 있도록 포인트 기부하기 상품도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 김민걸 · 권대규 교수, 발전기금 기부

전북대 김민걸(의학과·주식회사 나눔 스페이스 대표)교수와 권대규(바이오메디컬공학과·창업지원단장) 교수가 각각 3천 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지난 7월31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기부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전북대 창업지원단의 창업 활성화 및 창업 우수 인재 양성, 역량강화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민걸 교수는 "교원의 탁월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교원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그 결실을 대학과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 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대규 교수는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지역 거점 대학의 창업지원 기관으로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민걸 교수는 2022년 ㈜나눔스페이스를 설립하고 비대면 임상실험에 사용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 권대규 교수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창업지원단장(창업보육센터장, 희망전북 POST-BI 센터장 겸임)을 맡아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등 성공적인 기술창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창업경진대회 장려상 · 특별상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학생들이 창업경진대회에서 장려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3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한 심서현, 유지수, 윤서희, 황수정(3년) 학생은 '농산어촌 만성질환(관절염) 환자 맞춤형 보건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인 심서현 학생은 "경진대회를 준비하며 농산어촌의 만성질환 환자들이 병원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2023년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해 특별상을 받은 고두연, 허윤영, 최승연(3년) 학생은 '연명의료 결정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앱 개발'을 주제로 수상하게 됐다.

수상자인 최승연 학생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사회에 크게 알려지지 않던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관해 올바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 및 구체화 능력을 키울 수 있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보건관리학과 김상미 지도교수는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능력을 함양해 AI 시대에 적절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하림beSTAR 5기 발대식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일 하림beSTAR 5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림그룹 및 계열사의 인력수요와 적성을 고려해 전주대 2학년 학생을 채용예정자로 조기선발하고,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적성에 따른 직무별 교육과정을 운영해 글로벌 푸드&애그리비즈니스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교육프로그램이다.

이에 선발된 학생들은 하림그룹의 리더십 교육, 인성교육, 기업실무실습과 함께 직무별 전공교육, 융합교육 및 교양교육을 이수하고, 주전공 학위와는 별도로 산학융합 전공 학위를 받게 된다. 현재까지 47명의 학생이 IT, 마케팅, 디자인, 공무 설비, 생산운영관리 등의 직무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하림그룹 유기호 전무와 전주대 황인수 교육부총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림그룹 유기호 전무는 "하림beSTAR에 선발된 학생들은 미래의 하림 가족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 갈 자랑스런 인재"라며 "윤리적 바탕 속에서 저마다 적성과 재능을 찾아 각자의 분야에서 빛나는 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주대 황인수 교육부총장은 "하림beSTAR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의 교육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다"며 "수퍼스타로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기업과 사회에서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아동센터,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행사 개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단장 박신애)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들을 위한 명랑 운동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채현주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도내 14개 시·군 40개 지역아동센터에서 160명의 아동과 40명의 현장교사 및 자원봉사자 등 총 2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게 협동심과 배려심, 규칙의 중요성을 배우고, 더불어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술공연, 버블공연 관람 및 다양한 신체 활동을 펼쳤다.

박신애 단장은 "이 행사에 함께 한 복권위원회, 사랑의 열매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 사업'으로 인해 아동의 변화와 성장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전북지원단과 참여 지역아동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수 성과를 인정받아 현재 40개소 160명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창(하늘땅·한마음) 군산(나운·늘빛·옥구·옥서·파랑새·한우리) 부안(백산아름드리·운호·창북) 완주(봉동·용진·이서·화산) 익산(샘솟는·신황등·제일) 장수(번암·한우리) 전주(기린·삼천나눔·송천나눔·온고을·완산골·우아·으뜸·한마음·조은·초록별·태평) 정읍(그린·꽃들의둥지·나눔·수성·신태인꿈나무·열린·칠보·해바라기) 등에서 참여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남원의료원, 입원환자 무료 이 · 미용 봉사 재개

남원의료원이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이·미용 봉사를 재개하며 환영받고 있다.

의료원은 최근 이·미용실을 리모델링해 쾌적한 시설을 조성하고 휠체어 이용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지난 7월 12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가톨릭 및 기독원목실 봉사자의 재능 기부로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입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사해준 봉사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공공도서관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남원시가 1일 '2023년 남원시공공도서관 독후감공모전'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각 분야별 수상자는 △일반부 최우수상 이미경, △청소년부 최우수상 안채희, △초등부 최우수상 송창희로, 총 세 부문에서 15명이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1일부터 진행해 총 130여편이 접수되었으며, 남원시민이 응모한 독후감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 5명씩 선발, 남원 시장상과 남원사랑상품권을 수여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더불어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잼버리 장애인 대원 운송 지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북지부(지부장 이성만, 이하 전북지부)가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장애인 대원들의 든든한 발이 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세계잼버리 참가를 위해 서울에 도착한 영국에서 온 장애인 대원 4명을 안전하게 수송했다.

전북지부는 전동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는 리프트 버스를 보유, 이번 세계 잼버리 기간동안 기꺼이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이들은 장애인 대원들의 영외활동과정 및 행사기간 내내 수송을 도와주게 되며, 오는 12일 대회가 끝날 때까지 그들의 발이 될 것임을 자처했다.

이성만 지부장은 "해외에서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을 찾는데 너나 할 것 없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대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달려 가겠다"고 밝혔다.

양병근 지도부장은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모든 대원들이 새만금에서 좋은 추억을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